

말씀묵상

조원익 목사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 충남지방회장, 순복음주례교회 담임

말 속에 숨겨진 언약

출 34:27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는 각중이라고 하는 말과 행동이 있다. 이 말과 행동은 활공의 이치를 깨우쳐라는 뜻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그리스도인의 시각 즉, 목회자의 시각으로 이 말을 이해하고 풀이해 보자 한다. 성경에 보면 활과 활 쓰는 자, 즉 궁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만약 문자적으로만 보면 활이 하나님과 또는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활이나 활 쓰는 자에 대한 기록을 해두셨을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의 뜻이 숨겨져 있다. 그 증거로 다음 말씀을 참고해 보자.

출 34: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모세를 통하여 성경(더 정확히 말하면 문자적으로는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활의 뜻을 숨기시고 모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이는 문자로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활의 뜻이 있다는 것이며 이 활의 뜻이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이라는 말이다. 더 넓고 깊은 것은 뒤에 다루기로 하자.

그러니까 각중이라는 말에 대한 뜻은 활공의 이치를 깨우쳐라는 뜻인데 이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활의 뜻을 알고 아이에게 각중하고 말하고 가르쳤을까 우리 부모부터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고 말하고 가르쳐 오진 않았는지 우리들 스스로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해를 돕는다면 활(정2: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잠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쓰는 자가 되었더니"에 대한 원어를 보면 (쓰는데 쓰는 '활' (케레트)는 상징적으로는 힘, 활 모양(활 쓰는 사람), 화살, 활(진 병사), 화살이 미치는 거리(활쏘기에 알맞은 거리), 궁수, 무지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활은 곧 힘, 화살, 궁수, 무지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활에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쉽게 이성을 가지고 활에 대한 원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만약 문자 그대로 보이는 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 활의 의미는 전혀 생소한 즉, 활과는 거리가 먼 의미라고 할 수 있는 무지개가 포함된 것은 도무지 육의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활과 무지개는 육의 눈으로 보아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활과 무지개는 비슷한 의미를 포함한 말이라는 것이다. 즉,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이 활에 대한 원본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 특별히 시인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 쉽게 사용하는 말에도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들이 많다는 것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사용되던 문화와 일반적인 말들조차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

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지도자 이기에 모든 문제와 해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해답으로 다음 말씀을 참고해 보자.

골 1:19-20 "9.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물론 위의 본문은 많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중에 부분을 말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만물에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물론이요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에서조차 하나님이 신성을 숨겨 두셨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도록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씀도 많은 뜻을 포함한 말이다.

그러므로 이 활은 전 성경을 통틀어서 문자 속에 기록된 활의 뜻을 알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즉, 특별계시인 성경에 기록한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게 되면 만물 속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의 이성을 가진 눈으로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2011년 1월 찬양대 지휘자를 위한 합창워크숍 Searching Festival



성가대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창워크숍 (Searching Festival 2011.01)이 2011년 새해 13일 (목)부터 3일간 종로5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다. 한국교회음악출판협회(회장 정병철 장로)가 주최하는 금년 세미나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참석자들의 호평 속에 출판한 지9년전 어느덧 국내 대표적인 합창지휘 세미나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서창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 수록 수 많은 찬양대 지휘자들이 모이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열정을 되찾는 세미나이기 때문이다. 서창페스티벌에는 뜨거움과 간절함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행사당일 구성되는 코어이다.

국내 여타 세미나에서는 보기 힘든 규모의 행사 당일 일인 50여명의 코어가 3일 행사시간내에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아껴서 찬양을 연습하여 마지막 종강에 베풀 음악예배로 드리고 있다. 현재 소프라노 엘도 파트는 이미 마감되고남성 파트만 약간명지원이 가능하다.

매년 서창페스티벌을 통하여 새로운 음악과 영적 세계를 만나고 있는데 2박 3일이 결코 짧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짧은 기간으로 느껴지고 있다.

많은 참석자들이 세미나 참석하는 것 만으로도 6개월의 힘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2박3일 간의 세미나

참석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해결의 시작은 충분히 될만한 행사다.

강좌는 지휘자들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테크닉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악앙상블과 함께 하는 지휘테크닉(배종훈 교수), 이터클레이션의 실제(이민영 교수), 합창블렌딩(김은실 교수), 비팅테크닉(김지환 교수), 고전성가 해석법(송정훈 교수), 찬송가 테스칸트 연주법(김남수 교수) 등 이외에도 6가지 합창워크숍과 초창연주회, 아침 영성훈련 등이 개설되어 있다.

정기 수업 외에도 서창페스티벌만이 가진 백배서비스와 간식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수업시간에 참석할 때 마다 성가대원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의욕이 생길 것이며, 찬양을 통한 교회 부흥의 불씨를 태우게 될 것이다.

다음 카페 서창페스티벌을 통한 참석자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는 1월 13일 종로5가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찬양대 지휘자들의 노력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휘자들의 성장을 경험한 많은 교회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마다 해주고 있다. 교회체제를 위한 참가지원비 공문은 협회로 연락하면 발송이 되고 있다.

참가 문의(0502-399-2580/02-2233-8512)

'교회에 실질적 도움 되는 연합회' 강조

성남시 기독교연 신임회장 김용곤 목사 성탄예배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회장 김용곤 목사)는 구약 21일 성탄시 온누리홀에서 성탄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성남시와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특히 연평도 포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과 북한의 동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거룩한 나눔의 실천을 다짐했다.

'거룩한 나눔'을 주제로 열린 2010 성남시 성탄예배는 박기철 목사(분당제일교회)의 사회로 시작, 평정호 장로(분당남부교회)의 성탄기도, 신영숙 목사(해성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김용곤 목사가 성탄사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성탄사에서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교회와 성남시민들과 나아가 지금도 가난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자'고 말하고 '성남시 모든 교회들이 힘을 모아 성남시를 발전하는 복음의 도시로 만들어 가자'고 역설했다.

계속해서 성남시장 이재명 집사의 인사, 임문선 목사(영화교회), 신상진 의원(중원구)의 축사와 정재채 목사(직전회장, 영광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쳤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인사말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가장 큰 뜻이 사랑과 평화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랑과 평화가 성남시에 가득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성남시가 되게 하자"고 말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용곤 목사는 예배 후 가진 인터뷰에서 "보여주기 위한 행사 위주의 연합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는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신임회장으로서의 소감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목사는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신하에 재개발임대교회대책위원회와 복지위원회, 이단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목회자들과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재개발임대교회 대책위원회는 구 성남시 재개발에 따라 철거되는 460여개 교회들이 피해 없이 적절하게 보상받고 또 새로운 성전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위원회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존의 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현재 성남시 기독교연합회는 신하기 관인 '사랑마루'를 통해 180여명의 노숙자와 노동자들

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매년 성남시 소재 복지시설 장애인을 초청해 위로잔치를 열고 있다.

또 이단대책위원회는 각 교단 총회와 신학 전문위원들과 협력체를 구축, 성남시의 이단들의 활동상황과 피해사례들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강구한다. 김 목사는 이와 관련 "최근 성남시에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단의 문제점들을 상세히 파악하여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기독교연합회는 오는 1월 4일 영도교회에서 신년예배 4월 24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2011년도 성남시 기독교연합회를 이끌 제40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전회장 정학재 목사, 회장 김용곤 목사, 부회장 강정식 목사 외 25명, 총무 김유진 목사, 부총무 강병근 목사 외 24명, 서기 김유진 목사, 부서기 윤승호 목사, 회의록서기 한병기 목사, 부회의록서기 신영숙 목사, 회계이상은 목사, 부회계 이애스터 목사

2011년도 신년하례 예배 및 제25대 대표회장 최상열 목사, 상임회장 김용덕 목사 취임 회원교단 신임총회장 당선축하예배를 드리게 됨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25대 대표회장 최 상 열 목사



제25대 상임회장 김 용 덕 목사



사무총장 김 용 도 목사



고 문 조 용 목 목사



고 문 최 한 용 목사



고 문 최 보 기 목사



고 문 배 기 은 목사



고 문 배 진 기 목사



고 문 이 준 원 목사



고 문 김 상 용 목사

- 〈임원명단〉
△고 문 : 조은목 목사(하나님의성회 통합)
△고 문 : 최보기 목사(기침)
△고 문 : 최한용 목사(예장개혁)
△고 문 : 배기은 목사(예장호헌)
△고 문 : 배진기 목사(하나님의성회 통합)
△고 문 : 이준원 목사(예장합동총신측)
△고 문 : 김상용 목사(하나님의성회 통합)

- △대표회장 : 최상열 목사(예장동선)
△상임회장 : 김용덕 목사(하나님의성회 통합)
△사무총장 : 김용도 목사(기침)
△서 기 : 박찬목 목사(예장합동보수)
△부 서 기 : 김동민 목사(예장동선)
△회 계 : 이상용 목사(예장합동진리)
△부 회 계 :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감 사 : 공병철 목사(예장합동진리)
△감 사 : 박봉수 목사(UROC협의회)

· 일시: 2011년 1월 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그랜드엠베서더서울호텔
· 전화: 02-2275-1101



사 단 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THE COUNCIL OF CHRISTIAN DENOMINAIONS IN KOREA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4 라이프콤빌딩 811호
TEL : (02) 786-1601-4, FAX : 782-8095
http://www.ccdk87.com, ccdk87@komet.net

가 입 교 단

-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총회 총회장: 이희영 목사, 총무: 이영렬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총회장: 윤태준 목사, 총무: 유영식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통합)총회 총회장: 김상용 목사, 총무: 김홍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총회 총회장: 공병철 목사, 총무: 이상용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호헌)총회 총회장: 이영근 목사, 총무: 도용호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보수)총회 감 독: 정미리 목사, 총무: 정일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진리)총회 총회장: 김봉하 목사, 총무: 유희선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중원)총회 총회장: 안중관 목사, 총무: 오재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신측)총회 총회장: 김익희 목사, 총무: 김병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합동)총회 총회장: 박운진 목사, 총무: 이대현 목사
U R C 협 의 회 총 회 총회장: 최창복 목사, 총무: 유홍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 총회장: 이위 목사, 총무: 이수득 목사
대한예수교연합오순절교회총회 총회장: 최창복 목사, 총무: 김재훈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동선)총회 총회장: 최상열 목사, 총무: 김동민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수도)총회 총회장: 황상호 목사, 총무: 최천봉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은혜)총회 총회장: 김관종 목사, 총무: 신오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진리보수)총회 총회장: 손은호 목사, 총무: 원성덕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명희 목사, 총무: 임계식 목사
대한예수교오순절하나님의성회총회 총회장: 김지현 목사, 총무: 최상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진리총회)총회장: 박태영 목사, 총무: 김은실 목사